

광주시, 지자체 최초 'AI공공의료서비스' 본격화

AI 활용 앱·플랫폼 개발, 헬스케어실증센터 구축 선진의료서비스 개발... AI시민체감 1호사업 지정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체감형 'AI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AI 시민체감 제1호 사업으로 지정하고, AI 시민의료앱과 의료지원플랫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앱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AI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은 광주시민 대상 AI 시민의료앱 보급과 5개 보건소 및 지역 2200여개 병

의원 대상 AI의료지원플랫폼 지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 고령자 대상 AI헬스케어실증센터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앱을 통해 진단·검진·처방기록 등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영상을 CD 등에 저장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독·협진이 가능해진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해 과거 진료·처방 기록 열람이 가능하고 응급 치료 시 의사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흥부, 치과, 부정맥 등을

진단·진료하는 플랫폼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생성된 의료 데이터는 광주 국가데이터센터에서 저장·관리한다. 올해 보건소와 병·의원 100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AI헬스케어실증센터'는 하루 3000명 이상 이용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AI헬스케어실증장비를 구축해 고령자 대상으로 기초검진·재활 등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증장비는 보행패턴 등 분석을 위한 전신반응 분석시스템, 근육 활성도 분석을 위한 무선근전도 분석기, 신체 균형능력 측정을 위한 균형능력측정 및 훈련시스템 등 11종을 구축하고 운영기관 선정과 내부 인터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지난 6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AI시민의료앱은 여기서 생성된 이용자 본인 기초검진·재활 데이터와 병원 및 약국 진료·처방 데이터 등을 평생 관리하고 응급시 담당의에게 즉시 제공하여 신속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AI주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I헬스케어 실증센터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AI헬스케어 실증센터(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1층) 방문 또는 전화(070-8277-478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I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의 성공은 시민과 지역 병·의원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며 "광주만의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e-모빌리티 특구사업 1183억 규모 6개 기업 유치

전남도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업 6곳으로부터 1183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모두 112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했다. 전남도는 22일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2년 총 28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규제 완화 및 개선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목표로 영광 등 3개 시·군에서 주행실증을 해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지원 등을 수행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초소형전기차, 4륜형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의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e-모빌리티 기업 지원 ▲규제법령 정비 등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지난해 6월 ㈜코리야하이테크 등 5개사와 맺은 643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포함 총 1183억원의 투자를 끌어냈으며,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6개 관련 기업을 유치했다. 또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액 61억원 증가, 112명의 신규 고용인력 채용, e-모빌리티 관련 지적재산권 등록 15건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특히 초소형전기차를 연간 3만 대 생산하는 ㈜세모모빌리티, 3·4륜형 전기 이륜자동차를 연간 1만 2000대 생산하는 대풍EV자동차, 농업용 운반차를 연간 1000대 생산하는 ㈜코리야하이테크가 공장 준공 후 가동 중이다. 전기이륜자동차 제조기업인 이삭모빌리티, 하나모터스코리아를 비롯해 전통키보드 제조기업인 ㈜유테크 등 3개 사와의 부지계약 및 공장 착공 등 성과도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비상근무자 격려 이용섭 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119센터 방문 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9일 무안군 삼향읍 무안소방서 남악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연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전남형 일자리' 해상풍력단지 연내 착공 속도전

주민 수용성 확보·발전이익 공유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 용역 추진

전남도가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올해 내에 착공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성공의 관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와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 해상풍력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상생이 핵심인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이다. 지역 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상풍력단지 내 조업구역 감소 최소화 및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

업과 공존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최근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이익 공유와 수산업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종별 단지 배치, 국내외 기업 유치, 국산 기자재 개발 등 체계적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전남도는 연관산업 분야가 다양하고 신산업 창출이 쉬운 해상풍력을 통해 조산·기계 등 기존 지역산업을 대안화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사업 진출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1단계 발전사업의 전력계통 확보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한전 주도로 '공동접속설비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최적 경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을 방문해 해상풍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 입지 발급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다. 하반기에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확보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지정받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2GW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판 그린뉴딜과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라며 "해상풍력 사업을 기회 삼아 지자체 제조업 부흥을 이끄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미국 동부 2곳에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 추가

전남도는 최근 미국 동부 뉴저지 리지필드와 버지니아 아난데일의 한인 밀집 중심상권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설했다. 각각 전남도 16호, 17호 해외 상설판매장이다. 이번 뉴저지, 버지니아 상설판매장은 개설과 함께 추석 맞이 판촉행사도 가졌다. 판촉전에서는 각종 견어물, 젓갈류 등 전남 우수 농수산물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상설판매장 홍보를 위해 다양한 시식용 나눔행사 등 홍보판촉 활동을 함께 진행해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한층 높였다. 상설판매장에는 젓갈류, 김, 견어물, 장류 등 20개 업체 145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앞으로 뉴저지, 버지니아 상설판매장을 통해 연간 280만 달러 이상의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예상된다. 미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2017년 이후 매년 1천만 달러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남도 상설판매장 운영 지원사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 MG 뛰어라정기적금 1년 **4.0%** (조건부)
- MG NEW 정기적금 1년 **2.6%** (조건부)
- MG 더뱅킹 정기에금 1년 **2.1%**

우대조건

1. MG스마트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
2. 만기자동이체 등록
3. MG더뱅킹을 이용한 이체거래 실적 6회 이상

대출 상담 환영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간 애드밴스

건설공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성사거리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특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광주시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특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